

하나님의 안식: 거룩한 시간에서 거룩한 존재로 (창 2:1-3)**일상 나눔**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 보세요.**찬송 하기**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본문 읽기** 창세기 2:1-3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1. 하나님이 마치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누리라!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좋은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날입니다. 1절은 일곱째 날에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본문은 창조의 완성이 일곱째 날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일곱째 날’이 3번 반복). 여섯째 날까지 물질적인 세상이 만들어지고, 일곱째 날 안식(메누하, 고요/기쁨/쉼/평화)이 창조됨으로 창조가 완성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요 안식의 주인이심을 증거합니다(출 20:8,11).

창조된 인간이 맞이한 첫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좋은 것들, 고요하고 충만한 평화와 기쁨, 쉼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일하기 이전에 먼저 안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물질적인 생산과 노동과 성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서 고요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날이고, 우리의 인간성을 보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지 못하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내가 만들고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과 걱정 때문에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시 23:2, 마 11:28)임을 믿을 때 비로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이 멈추셨다: 일을 멈추고 쉬라!

둘째, 안식일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쉬는 날입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치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뜻하는 ‘샤바트’는 ‘그치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리적인) 창조의 일을 그치고 멈추셨다면 우리도 일에서 물러나 멈추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안식일을 나를 위한 온전한 휴식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출 20:10,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안식일은 내 욕심과 만족을 구하는 날이 아닙니다. 일을 그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획득하는 활동을 멈출 때 우리는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함으로써, 세상을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보내신 날을 ‘대안식일’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다 이루었다”), 무덤에 묻혀서 안식일을 온전히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안식일이 절정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도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쉬신 대안식일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활동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멈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멈출 때,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멈추고 쉬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3. 하나님이 복 주셨다: 거룩한 시간 속에서 거룩한 존재로!

셋째,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신 거룩한 시간 속에서 거룩한 존재로 빚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3절). 여기서 ‘거룩’(카도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이 시간 속에 침투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시간 속의 궁전’이라 불렀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옛세 동안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압박과 공간과 물질의 지배에 눌려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시간 속의 거룩함과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 더 큰 세계, 즉 하나님과 영원에 잇대어 있음을 말해 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십니다. 그 거룩한 백성들이 공간(성막)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출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그 영혼이 새롭고 충만하게 될 때, 나머지 육 일 모두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 거룩한 시간 속에 머뭇으로써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때, 이 세상도 목적 없이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 포인트

1. 창 2:1-2은 하나님의 창조가 언제 마쳤다고 합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2.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후 무엇을 하셨습니까?(2절) 안식일의 ‘쉬/그침/멈춤’이 왜 중요합니까?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안식일의 쉬/그침/멈춤에는 누가 포함될니까?(출 20:10)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4. 안식일은 어떤 점에서 다른 날과 구별되는 특별한 날입니까?(3절)

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함심 기도

말씀을 기억하며 / 후원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를 위해 / 다락방과 교회를 위해

모임 마무리

광고 /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 주기도문